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느헤미야의 위대한 비전 (느 7:1-7)

The Great Vision of Nehemiah (Neh 7:1-7)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올린 것은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벽재건은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한 연습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더 큰 비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에 충만히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The fact that Nehemiah had built up the wall of Jerusalem in 52 days was not just his sole purpose. This task was also the method in which Nehemiah gained a greater vision. The rebuilding of the wall was only practice to achieve that vision. His greater vision was to confirm to the people that they are chosen by God, and they are to worship Him faithfully and obey Him. Moreover, God's wall in Jerusalem gave a sense of belonging for His people to fully worship and reside there.

1.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구분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 되자 문지기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벽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이 방법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 Nehemiah who clearly distinguished his purpose with a method

Upon completing the wall, Nehemiah appointed gatekeepers, singers, and Levite's separately. The ultimate object of Nehemiah was worship. For worshipping God, he needed the rebuilding of the wall. Nehemiah knew very well what his object and method was.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일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 변했어. 나도 저렇게 변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것이야말로 세상 한 복판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진정한 예배이며,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Our faith is just the same as this. We receive God's grace through worshipping, and receive discipline through God's word. However, it cannot be our ultimate focus. We must often hear the following words in the neighborhood, and at work, "That person has been changed. If only I can change like him/her. I'd like to believe in Jesus Christ." This is really God's glory that we must reveal to the world: truthful worship, and this must be our ultimate focus.

2. 지혜롭게 팀 사역을 한 느헤미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2절).

2. Nehemiah who wisely did his team work

"I put in charge of Jerusalem my brother Hanani, along with Hananiah the commander of the citadel, because he was a man of integrity and feared God more than most men do"(v. 2).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특신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성도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팀을 이루어 사역해야 합니다.

The reason why Nehemiah chose these two men was that they were men of faith and integrity who feared God. Nehemiah always did not work by himself but worked with his coworkers. It is really important for Christians to have the blessings of fellowship. We cannot fulfill our duties ourselves that were given by God. So we must always make a team and work together.

사도 바울이 거대한 복음 사역을 그토록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의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The reason why Apostle Paul was so capable in carrying out his huge task of delivering the Gospel was his coworkers who would give their lives to serve.

3. 긴장을 늦추지 않은 느헤미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성에 거할 거민이 없었습니다(4절). 성벽이 무너진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막상 성 안에 거민이 없는 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3. Nehemiah who didn't ease his tension

Though the wall had been rebuilt, there were few residents in it(v. 4). It was shameful for the wall to be destroyed, but it was even more shameful that there were actually no residents in the walls after the walls had been completed.

느헤미야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을 건축해야 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다 모아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 모든 백성들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남아 있는 토지에 가족들을 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 그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성 안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아지고, 젊은이들, 어린 아들이 가득해 질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Nehemiah had still many things to do. He had to build houses, and assemble the people of Judah who came from Babylon. First of all, he let the people of Judah register by family according to genealogical record. It was not easy for him. Nevertheless, Nehemiah did that task. Nehemiah had a vision to build houses on the remnant land, many people would live there, and the number of people would increase little by little. Just like God's word that was given to Zechariah, he saw the old people who would increase within the wall and it would be full of youth, and childr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룩한 팀 사역을 하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n front of God, looking at the vision and mission that was given, and by doing holy team work, persistently and in stages, with the wisdom that was given by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win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웃의 등대, 서울교회 수해복구 봉사활동 가져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2일(화)에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긴급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박노철 목사 외 봉사참가자 105명은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우면동 송동마을과 양재1동 피해 현장에서 비닐하우스 잔해 철거, 토사제거, 지하

층 침수된 곳의 벽지와 곰팡이, 오염물 등을 제거하며 수해 현장 복구에 힘썼다. 수해를 입은 이웃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철 목사 총회목사고시 합격

지난 5월에 치러진 2011년도 목사고시에서 박노철 목사가 합격했음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8월 1일자로 공식 발표하였다. 남은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

님의 평강과 부흥이 서울교회에 넘쳐나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는 2011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란다.

(재)한국기독교학술원 홈페이지 개편

멀티미디어단(단장 오정수 장로)은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운 목사)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여 8월 1일(월) 오픈하였다.

(재)한국기독교학술원은 국내외 기독교적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하여 석학들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회나 사회가 성경적, 신학적 해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찾아 공개강연회를 통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5일(월)-11월13일(주일) 10주간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창세기 반	월, 오전 11:00-12:00	박종민 목사	602호
베드로전서 반	목, 오후 7:30-8:30	박광일 목사	602호
소선지서 반	금, 오전 8:00-7:00	한상은 목사	602호
성경통독 반(30주)	화,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금, 오후 7:00- 8:00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1:00	박종민 목사	601호
살림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1:00	서명열 목사	101호
선교대학	월, 오후 7:00-8:30	박건아 목사	602호
꼬꼬마가베 학교	목, 오전 10:30-오후 12:00	김은숙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수, 오후 8:30-9:30	Steven Martinovich 목사	603호
서울음악교실(6주)	주일, 오후 1:30-3:00 (9/11 - 10/16)	박경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12:40-1:40 (9/11 - 10/9)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확교회 초,중급반	주일, 오후 12:50-1:50(초급반) 주일, 오후 3:50-4:50(중급반) (8/28 -12/11)	임규현 목사	608호
신약의 파노라마	목, 오전 11:00-12:00	장석남 목사	603호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은 9월5일(월) 개강하여 11월13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은 성도와 이웃주민이 함께 좋은 강의를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도 되도록 준비되고 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되기를 소원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4]

(문 12)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답) :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져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지 못했다는 이론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계 13:8)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 타락하여 범죄할 것을 예지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기도 하겠다고 했지만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아셨고 또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마 26:33-35, 눅 22:60-61).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아담을 찾으셨을 때(창 3:9) 그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시 139:2-3).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행하였는지도 아셨습니다(잠 15:3). 그래서 '네가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하시기보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에 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자식의 허물을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자식 스스로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복하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과 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창 3:14-19). 이것은 사도행전 15:18에서 "예로부터(세상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26; 42:9,23; 44:7-8등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심과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先見 즉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누가 믿을 것인가도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롬 8:29). 이처럼 하나님이 예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창조하는 믿음입니다(요3:3-8; 6:44-45; 엡 2:8; 빌 1:29; 벧후 1:2) 믿을 것으로 예견하신 사람들 속에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하신 그의 작정(decree)에 의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롬 8:29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다는 동사가 단순한 인지(認知) 이상의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로는 부부 사이에 아는 것 즉 사랑한다 또는 관심과 기쁨과 애정의 관계로 안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미리안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 즉 미리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리 보시고 미리 사랑하시는 예지로 그의 불순종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 계속)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중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윤형준 집사(단기선교팀 총무)

서울교회 제 11기 단기선교팀(지도 박종민목사, 단장 이강진집사)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속에 지난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뒤로 하고 8월 1일 인천을 출국하여 8월2일 새벽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여 느낀 첫 소감은 공항에서부터 시내 곳곳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자 이슬람 국가임을 라마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유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도 이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카에서 북쪽으로 6시간 거리의 첫 사역지인 진주목걸이라는 뭍따가차 지역을 시작으로 의료, 이미용 및 어린이 교육사역을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원 모두 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하여 6시 새벽예배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팀원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서 복음의 도구로써 쓰임 받음에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비록 적은 달란트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



사하시느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뭍따가차에서의 첫 사역을 앞두고는 밤새 정말 많은 비가 내려 모두가 걱정으로 쉽게 잠을 청하지 못했지만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오히려 이곳 높은 습도의 무더위를 사역하기에 쾌적한 날씨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아울러 숙소와 선교지를 오고가며 중앙선을 완전히 무시한 운전습관과 저녁시간 라마단 기간의 혼잡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8월 3일 뭍따가차에서 의료진료 309명, 이미용 70명, 8월 4일 다카 장로교회에서 의료진료 455명, 이미용 106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로이 마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남은 사역에서도 서울교회의 많은 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남혜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다카 소망호스텔 여

름성경학교와 어린이 선교사역에서도 선교의 불모지인 이슬람지역에서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이라도 뿌려지도록 마음껏 섬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신혼가정부 수련회 초대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

한대석 성도(신혼가정부)

신혼가정부는 이제 결혼한 지 1달이 된 신혼부부부터 결혼 5년차가 되어가는 부부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과 열심 어린 기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달 진행되고 있는 가정심방을 통해 끈끈한 우정도 쌓으며 말씀과 친교로 하나가 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서울교회 모든 부서가 수련회

가정의 평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들을 배울 것이며, 가정예배 세미나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예

로, 여름성경학교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신혼가정부도 8월 14일 주일저녁부터 15일 월요일 오후까지 수련회를 아가페타운에서 가지고 합니다.

배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서울교회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기초의 단위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청년부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게 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에 이제 막 가정을 꾸린 많은 젊은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혼자가 아닌, 함께 가정을 꾸리며, 함께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2부 여름수련회 초대

하나님을 기대하라

최진경 성도 (청년2부회장)



'2011 청년2부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주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가페타운(경기도 청평)에서 열립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자연스레 맞게 되는 수련회지만, 이번 여름수련회를 앞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8)로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청년2부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해봅니다. 또한 청년2부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과(82-86년생)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주일 예배 때마다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가야하는 당연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련회에 참석하여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2부 및 여름수련회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다면 청년2부 클럽(club.cyworld.com/welcomhere)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 (8.5~6)

편지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아가페타운에서 저희 부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하며 도움 주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님,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아가페타운에서 일하시는 다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가페타운에서 수련회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수련회 기간 내내 아가페타운 관계자 분들께서 도와 주셔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밤에 준비했던 캠프파이어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삼겹살 파티가 엄청난 폭우로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준비해 간 삼겹살 파티만이라도 하기 위해 빗속에서 준비하는 저희 모습을 보시고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나서서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셔서 참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가페타운 전경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서울교회와 아가페타운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내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께서는 목사님과 중등부 선생님, 아가페타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광성교회 고등부에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도 꼭 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윤희정 성도의 하프(Harp)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다 찬양하여라(S.Gesangbuch)", "아침(M.Toumier)", "나 같은 죄인 살리신(E.O.Exell)" 등 다섯곡을 찬양의 소리라고 하는 하프연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윤희정 성도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시카고 시립오케스트라와 콜롬비아 오케스트라의 객원단원 등을 역임하고 귀국하여 독주회와 활발한 연주 활동 등으로 하프음악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 7일(주) 사자교회(특전사령부)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한다.
- 노현상 목사의 사임에 따라, 13교구, 찬양예배위원회, 빌립산교회, 도르가전도회 지도: 장석남 목사, 14교구 지도: 박광일 목사가 담당한다. 70인 전도대 지도는 부교역자 교대로 담당한다.
- 개업: 최봉희 집사(16교구) 허브 다이어트, 강남구 대치2동 978-6 Tel. 010-8000-2639
- 이전개업: 박동원 집사(3교구) 박동원한의원, 강남구 도곡동 957-11 스타클래스 315호
- 교역자 휴가: 서명철 목사 8월10일(수)-16일(화) 주일제의 대행: 정수길 목사
임규현 목사 8월10일(수)-16일(화) 주일제의 대행: 박진아 목사
- 주간식당봉사: 뽕뽕전도회(8.7) 마리아전도회(8.14)
- 금주의 식사: 김재진 목사 김수경 사모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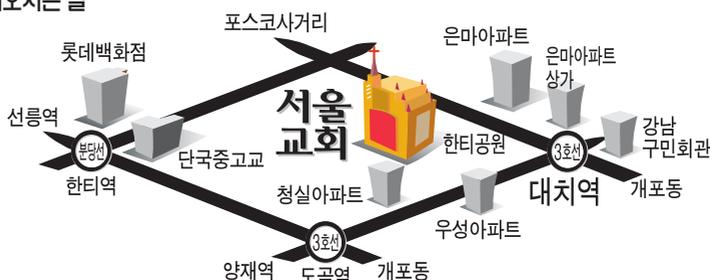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8월 1~9일까지 계속되는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을 전능하신 손으로 불러들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 풍성하도록
2. 휴가를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안식과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며 영육간에 강건함 가운데 새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